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⑦ 호남 금융 새시대 여는 김 한 광주은행장

“수도권자금 적극 유치해 지역에 풀겠다”

대담=홍행기 경제부장

김 한 광주은행장은 호남지역 금융계의 수장(首長)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계열사로 둔 JB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함으로써 광주와 전남, 전북을 대표하는 정통 지역은행 2곳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장직에서 물러나 지난해 11월 26일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의 희망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선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만난 김 행장은 지역민이 광주은행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김 행장은 “지역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 지역은행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소매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올해는 광주·전남지역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90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에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에서 끌어 모은 자금(수신)보다 더 많은 돈을 지역에 풀겠다는(여신) 것인데, 수신과 여신의 갭(차이)은 서울 등 외지에서 가져온 돈으로 채워겠다는 복안이다.

미국 월가에서 증권맨으로 일하며 선진 금융기법을 익힌 김 행장은 광주은행의 해외진출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앞으로의 영업전략과 관련해선 공격적인 영업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도권은 물론 인천, 대전 등지의 건물 2층에 직원 4~5명 수준의 소규모 미니점포를 개설해 점포당 생산성을 높이고 은행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영향으로 고객들이 창구를 잘 찾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수도권 공략 및 소매금융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행장은 기대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30%대 초반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인, 중·서민을 위한 ‘소매전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김 행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대기업이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대신 지역 규모에 맞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위한 영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춰 광주은행을 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농업에 강점이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광주은행을 농생명분야에 특화된 은행



프로필 ▲1954년 출생 ▲경기도 졸업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에일대 경영대학원 졸업 ▲동부그룹 미국현지법인 사장 ▲대신증권 국제본부장 ▲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 ▲PAMA그룹 서울대표 ▲메리츠 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전북은행장 ▲JB금융지주회장

돈 돌게 하는 것이 지역은행 역할을 광주·전남 1조5000억원 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중시 소매전문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

미니점포 개설로 수도권 등 공략 전북은행과 경쟁 유지 시너지 효과

으로 육성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활동 외에 지역공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은행을 ‘우리 은행, 나의 은행’으로 여기며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지역민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김 행장의 설명이다. 그는 “광주시민, 전남도민들은 광주은행을 ‘나의 은행’이라 생각하며 커다란 사랑을 갖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광주은행의 최대 장점”이라며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기 위해 ‘지역공헌실’을 신설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과 전북 두 지역간 정서적 차가 큰 만큼 두 은행을 통합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서로 사업구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지점 통합은 없으며, 특히 각 지역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라는 각각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지역 기업과 광주은행 간의 관계와 관련,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일일이 금리를 따지는 것이 은행과 기업 간 최선의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라는 의미에서다. 김 행장은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가 경쟁입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업이 평소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먼저 기업에 신뢰를 주고, 기업도 은행과 신뢰를 쌓아가면 서로가 신뢰의 바탕 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민에게도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당부했다. 김 행장은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지방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지역민들이 주인인 지역은행”이라며 “지금도 많이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은행이기에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한 광주은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파마그룹(PAMA Group) 서울대표, 대신증권 국제본부장, 메리츠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전북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JB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중이다.

JB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삼양그룹 창업주 김연수씨의 손자이자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7조원이던 은행자산을 4년 만에 40조원으로 불리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왔으며, 지난해 11월 26일 민영화된 광주은행 첫 은행장으로 부임했다. <끝>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설 땅 잃은 애연족...마냥 부러운 흡연 풍경



(101) 담배

담뱃세 인상에 이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거세다. 세금 인상이 분명함에도 ‘국민 건강’이나 ‘증세 없는 복지’란 수사로 얼버무리니 민심이 더욱 들끓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주변 애호가들을 보면 이래저래 치사해도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인가 보다.

질긴 애연의 역사는 남성에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다 옛 그림 가운데 풍속화가 해원 신윤복의 그림들에 유독 다양한 흡연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생과 한량, 양반층의 놀이와 유흥을 주제로 한 신윤복의 ‘해원풍속화첩’ 가운데 ‘연당 아유(蓮塘野遊)’ ‘연소담청(年少踏靑)’을 비롯해 ‘연당의 여인’ ‘선유도(船遊圖)’ 등에는 긴 곱방대를 여유 있게 들고 있거나 피고 있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작품 ‘연소담청’은 세 쌍의 남녀가 풍경 좋은 곳으로 행락을 떠나는 길에 기생들을 팔에 태우고 선비들은 걸어서 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꽃피는 봄날이었을 것이다. 저 바위 틈에 핀 진달래꽃을 꺾어 머리에 꽂은 기생 한 명은 이미 곱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있고,



신윤복 작 ‘연소담청’

뒤쪽 여인이 “나도 한 대 피우겠다”며 허손을 내밀자 앞선 달려와 담뱃대를 건네주는 남자도 보인다. 맨 왼쪽 화면 속 선비는 기생을 태울만한 말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짝이 없어서인지 뽀로롱한 인상을 짓고 있는 듯하다.

이태호교수(명지대·한국미술사)는 저서 ‘풍속화’에서 “당시 반상을 구분한 성리학 이념의 폐쇄적 사회 분위기에서 서민의 향락풍조를 통해 현실을 꼬집은 해원의 풍자는 사대부의 윤리관이나 체면치레에 일격을 가하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회의식이 깔려있다”고 전한다. 그 때문에 화원화가였던 해원은 도화사에서 추방되었다는 일화도 나돌았을 정도다.

어쨌든 담뱃값 인상 때문에 피울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 시대 애연가들로서는 해원의 그림 속 느긋한 흡연풍경이 몹시도 부러울 법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주시대’ 개막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나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사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41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연금서비스 기관으로, 서울 여의도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12월 이사를 완료했다. 신청사는 부지 1만1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 1만㎡이며 본사 직원 188명이 근무한다.

개청식에는 김신호 교육부 차관과 신정훈 국회의원,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서재홍 조선대 총장, 김광복 전남도립대총장, 김형배 고구려대총장, 강인규 나주시장, 양복안 국토부 이전지원국장, 최외근 한전KPS 사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주공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

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 설계와 안정적인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1974년 설립 초기 45억원에 불과했던 연금 자산이 현재 1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최고의 연금서비스 기관이다. 현재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전국 25만5000명의 사립학교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랑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 아동 양육시설인 나주 백민원 등을 찾아 후원하고,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50th Kwangju Ilbo 3.1 National Marathon. It features a runner in the foreground and a map of the course. Text includes: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2015년 3월 1일(일) 08:30 출발', '문의: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출발: 풀코스 8:30, 하프코스 8:35',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상무지구 끝!! 풀코스, 하프코스 중심 대회!!'. It also lists registration detail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